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섬김    제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성경:요한복음

### 13장 1-17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13:1-17)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피곤을 누린다.

물론 사람의 능력은 대단히 섬세하며 경탄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도 단순하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나 경탄할만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은 일로 분주한 사람은 경탄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집중하게 되면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귀가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 있고, 탐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사람들의 관심을 죄악으로 되돌려 놓았다.

원래는 호기심과 탐구하는 본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다 나은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지음 받았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자신의 삶과 일터에 적용하기만 해도 그는 행복을 누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만족도 사실은 대리만족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을 하기 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리만족에 불과하다. 그는 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불행이 무서워 할 수 없이 다시 마약을 찾는다. 마약은 신경발란스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마약 외에는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마약이 주는 만족은 가짜이며, 진짜 행복이 아니다.

마약을 하지 않고도 진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세상이다.

죄가 그렇다. 처음으로 부모님 몰래 죄악에 빠지는 시기가 사춘기이다. 사춘기에 빠진 청소년은 더 이상 그동안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칭찬,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이 행복하지 않게 여겨진다. 부모님의 칭찬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부모님의 칭찬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한다. 기독교인들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잡하게 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니까 그게 가능해 졌을 뿐이다. 그래서 보통은 싫어하는 것들도 전혀 싫지 않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된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싫어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신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강력한 만족을 누리게 한다.

예수님은 당시 긴장된 순간을 보내고 계셨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한 순간 한 순간 제자들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심지어 가롯 유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달래거나, 그와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다. 다

만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염려하셨다. 주님이 나를 염려 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주님은 가롯 유다와 더불어 파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만족의 조건이 된다. 사랑이 거짓으로 들어나거나 배신을 느끼게 될 때 무산되고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든지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리고 그의 배신의 이유가 해명된 이후에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가롯 유다는 이미 배신을 결심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롯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코칭 하셨다.

가롯유다 못지 않게 예수님께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자기 의가 강하였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다. 자기 판단에 틀렸다는 느낌이 들면 좀처럼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오늘도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모든 충성심을 발동하여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이런 제자가 곤란한 제자다. 어떨때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신다. 그러나 눈치 없는 베드로는 탄나라 생각에 빠져 있다.

다들 발을 씻기웠다.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부터 씻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가 선두주자라고 여긴 베드로로써는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수 있다. 왜냐면 바로 몇시간 전에 누가 제일 크냐로 논쟁이 심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자니, 자기가 맨 꼴찌가 되는 기분이 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발을 씻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주도권 다툼을 위해서 결국 주님께 대들고 만 것이다. 그는 절대 주님께 대들고 싶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장 되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뭔가, 나에게 있어서는 아니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을 엉망이 되게 한다. 나사 하나만 빠져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기계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혹시 잘못 되더라도 점검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은 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판단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도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잘못 되었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고치신다.

아니면 내가 질문할 수 있고, 주님이 답해 주실 수 있다.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꾸지람을 듣거나 부끄럼을 당하거나 일을 망치게 된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가지 깨달아야 한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며, 섬김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를 섬기면서 행복해 한다.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다음으로 마귀는 아랫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이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섬기려는 분이시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있다. 이것을 거부하고 마다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발만이다. 이미 목욕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목욕이 끝났다. 그러나 날마다 사소한 실수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다. 그러면 서로 그것을 감당하고 씻겨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발만 씻겨주는 것이다.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자기를 주인보다 크지 못한자로 여기는 것이 복이다. 주님도 그러하셨다.

누군들 스스로를 크다 일컫겠는가?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모두를 섬길수는 없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은 충분히 있으니 섬기며 주님을 따르자. 아멘.